

# “인따르시아, 천연광물성분 원적외선 방사체 액상 바이오 개발 성공”

상온(35℃)에서도 방사/섭유, 비섭유분야에 응용 가능한 최첨단 생명공학기술

김현재 : 인따르시아(주) 회장

패션양말의 선두주자, 입체양말, 쏘양말로 유명한 인따르시아가 6년여의 각고 끝에 원적외선 방사체 액상 바이오 인따르시아를 개발하여 주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인따르시아는 그동안 수출탑 수상, 업계최초 유망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선정되는 등 업계에서 이루지 못한 많은 진기록을 가진 업체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이번에 개발한 바이오는 업계는 물론 산업 전 분야에 응용이 가능한 획기적인 최첨단 생명공학기술로 주위의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최첨단 신소재인 바이오에서 방출되는 원적외선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물체에 흡수되면 활성화에너지로 변하여, 일명 “생체활성화의 빛”이라 불리우며, 일본에서는 이미 건강과 과학을 접목시킨 최첨단 과학으로 전 산업분야에 응용 및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기존의 파우더를 이용한 바이오 세라믹스 제품은 고온(100-300℃)의 열을 가하여야만 원적외선 방사효과가 있으므로, 상온 또는 저온에서 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원료타입이 분말이므로 적용범위에 한계성을 드러내는 단점이 있다. 지금까지 국내 및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는 바이오 세라믹 원료 및 가공제품은 거의 파우더를 이용한 원적외선 관련제품이라 말할 수 있으나, 인따르시아에서 개발한 액상원적외선 방사체는 상온(35℃)에서도 최대의 효과는 물론 섭유, 비섭유 분야에 응용 및 접목이 가능한 최첨단 생명공학기술로, 원료제조 방식부터가 기존의 원적외선 방사체 원료(파우더, 액상포함)와는 다른 100% 천연 광물성분 이온화이며 원적외선 원료성분의 관건인 방사율이 90% 이상인 고효율의 방사체이다.

이렇듯, 고효율의 바이오 가공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우선 혈액순환 촉진을 들 수 있다. 상온과 저온(35℃)에서 원적외선이 방사되어 인체에 흡수되면 강력한 복사와 침투력에 의해 말초혈관의 운동기능이 강화되어 혈류속도 및 혈류량을 증가시킨다. 또한, 바이오를 적정량 식품, 화훼 및 각종 채소류에 투여하면, 신선도 유지 및 식품의 숙성을 단축시키고 맛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며, 일시적이 아닌 영구적인 숙성을 이루게 된다.

바이오를 섭유산업에 접목시킬 경우, 원적외선 생체활성화 기능은 물론 항균기능, 항곰팡이기능, 소취기능,



정전기발생 방지기능 및 쾌적한 식물성 향기 발생기능을 갖게 한다. 또한 바이오의 차별화 된 장점 중 하나는 쾌적함을 부여하는 점이다. 사용할 수 있는 향의 종류는 총 60여가지가 되며, 대분류로 꽃향기류(장미향, 백합향 등), 과일류(오렌지향, 살구향, 레몬향 등), 나무류(소나무, 침엽수 등), 향수류(푸른물향 등), 기타 향신료 혼합향등이 있다.

이렇듯, 기존 제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효율, 다기능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기에 차원을 달리하는 획기적인 개발품목이 되며, 고품격 품질고급화를 이룰 수 있는 매우 유용하고 산업 전 분야에 파급적인 기술개발이 되는 것이다.

인따르시아의 바이오 개발은 전산업에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업계의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현재 발명특허 2건(제0215991호, 제0112475호)과 실용신안 1건(제0157327호)을 출원하였으며 사단법인 한국원적외선협회로부터 품질보증(FI마크) 업체로 지정받았다.

또한 인따르시아는 2000년에 자체 전자상거래 운영 및 다각적인 브랜드사업 등 기존의 동업계에서는 생 각지도, 실행할 엄두도 못내는 큼직큼직한 이슈사업을 진행 하고 있어 업계에 일대 변혁을 일으킬 전망이다.

이제, 인따르시아는 기존의 한국을 대표하는 패션양말전문 업체라는 타이틀 외에, 무한경쟁시대를 선도하고 최첨단 생명공학 신기술의 연구개발에 앞장서 국민의 건강과 생활의 질 을 한차원 높이는 21C 초일류 기업으로 언급되기에 부족함 이 없을 것이다.

